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The bitterest tears shed over graves are for words left unsaid and deeds left undone.

(Harriet Beecher Stowe)

무덤 너머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미처 하지 못한 말과 행하지 못한 행위를 대신한다. (해리엇 비처 스토)

우리 사회에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성원 박사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국제로타리 회원이며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입니다. 타이틀이 묵직하게 느껴지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몸소 봉사를 실천하는 어른입니다. 매년 몇 차례 씩 전국의 도서 벽지를 돌며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CHA 의과대학 강남차병원 비뇨기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권 박사님은 지난 2012년에 40여 년 동안 방광, 전립선 등 비뇨기 암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만난 아버지 세대 환자들

의 가슴 뭉클한 자식 사랑을 그린 ‘아버지 마음’이란 수필집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책의 수익금은 모두 전립선 무료진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로타리 활동을 통해 권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연유로 가끔 지척에서 권 박사님을 뵈기도 하고 그분이 발행인으로 있는 ‘전립선’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그분의 인간적인 글을 읽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의예과 학생 시절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동료들을 잃고 봉사활동은 시작도 못한 채 시신을 찾느라 마음 졸였던 가슴 아팠던 사연을 얘기했더군요. 그 글 중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렸고 그 사건 후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취했던 감동적 행동에 대해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썼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흐릅니다.>라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글을 썼을 때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작가 이름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밝히며, 출처를 아는 분은 알려달라고 썼습니다. 제 글을 읽은 한 독자께서 출처를 알려 주셨습니다. 제천 소망교회 지연웅 목사님의 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를 알려주신 홍성근 님께 감사드리며 원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흐릅니다.

지연웅(제천 소망교회 목사)

아버지를 나타내는 한문(親)은 나무에 올라 멀리 바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아버지들은 멀리 바라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곱도 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한 아들 한 아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였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 수 천대를 바라보며 축복하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집을 나간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그 기막힌 돈을
다 탕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의 소식을 들었기에 고개를 더 길게 하여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다 아들을 눈물로 맞이하는 애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허물을 잘 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그리움만 많습니다.
자식들의 먼 후일을 바라보고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너털웃음으로 참아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을 참아내면서도
미소 지으며 집안을 들어서는 아버지,

아버지는 말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작아서 자식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잔정도 없는 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없기에 생각이 더 많고,
사랑의 표현이 약하기에 마음의 고통은 더 많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랑에는 인색하지만 큰 사랑엔 부자입니다.
대범하게 용서하고 혼자서 응어리를 풀어내는 치료자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내일을 예견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예언자입니다.
자식을 바로잡으려 때로 사자후처럼 집안을 울려도,
자식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강수처럼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떠나서야 알아잡니다.

출처 : 제천소망교회(<http://www.jsomang.or.kr>)

행복을 여는 편지(2005-03-30)